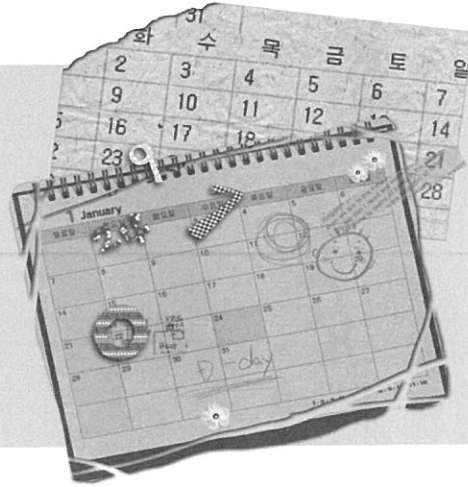


6월의 사양관리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제공
(집필자 : 허태영, 이현준, 윤호백)



축사환경관리

5 달월까지도 겨울과 여름 기온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6월을 맞이하였다. 지난 해 여름이 5월말부터였던 것을 생각하여 최근 기후는 봄을 생각한 기후라 생각하고 농가는 6월부터 곧 바로 여름 맞이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기온이 상승하면 동절기동안 움츠렸던 축사내 외부의 각종 세균들이 번성하게 된다. 축사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은 최우선이 축사의 건조이며, 오물의 신속한 처리이다. 그리고 정기적인 소독이 되겠다. 소독은 축사내 전반적인 방역소독과 바닥의 세균과 기생충을 제거하기 위한 크레졸 소독의 두 가지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크레졸 소독은 여름에는 1~2회/주 간격, 겨울에는 1~2회/2주 간격으로 해주기를 권한다.



젖소의 영양관리

젖소의 관점에서 먹거리들을 보면, 사일리지, 건초, 배합사료 등은 가공식품이라 할 수 있고 푸른 생초는 신선식품이라 할 수 있겠다. 사람의 식사에도 고영양의 육류나 생선, 그리고 각종 가공식품이 있지만 정작 식욕을 돋우고 기분 좋게 하는 식품은 푸른 채소나 생과일먹거리 이듯이 연중 가공식품만 먹던 젖소에게 푸른 청초 만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청보리, 청예호밀, 청예 IRG 등의 6월 급여 프로그램은 젖소의 생기 UP을 위해 필수라 할 것이다.

기온 상승에 따라 물 섭취량이 증가할 것이다. 젖소가 섭취한 물은 대사수로 사용되어 젖소의 건강과 생산 및 생명활동을 위해 단백질과 에너지등의 영양물질보다 더 중요한 기능을 하여 부족하거나 비위생적인 물을 섭취할 경우, 생산성 저하와 질병 발생 등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다. 물은 혈액량을 유지하고 조직에 필요한 영양소를 운반·공급하는데, 착유우에 의해 분비되는 우유의 약 87%를 구성하고 있어, 매일 우유 생산량의 3배 이상의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깨끗한 물의 충분한 량의 공급관리는 정상적인 반추위 기능과 사료섭취량 증가는 물론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 체성장과 우유생산 등 대사활동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급수원의 위생상태와 물 저장탱크, 수도관의 부식여부를 진단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급수조의 위생상태는 매일 확인 조치해야 할 것이다.



조사료 관리

초 근 절기 조사료의 수확시기이다. 호맥이나 IRG, 청예보리의 풋베기 관리시는 반나절 이상 건조하여 공급해 주는 것이 좋으며, 베일러 혹은 사일로 저장 시에는 가급적 충분한 수분함량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확하는 것이 좋다. 수확 조제한 베일이나 사일로에 대한 침수나 통풍을 막아 사일리지 발효를 위한 최적의 기밀상태가 유지되도록 진압, 밀봉 등의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제조 후에도 정기적으로 기밀상태 유지를 위한 조치(베일 포장이나 사일로 피복지의 찢김이나 침수 여부 확인 조치)가 중요하다.

봄 수확 작물의 후작으로 옥수수를 재배하려면 파종이 늦지 않도록 하고, 옥수수와 수단그라스는 파종후 3~5일 이내에 잡초우점을 방제하기 위해 정보(ha)당 라쏘 3,000ml와 씨마진 1,000ml를 물 1,200l 에 같이 풀어서 전면 살포해주는 것이 좋다.



방역 및 질병관리

초 근 중국에서 발생된 조류인플루엔자 A형(H7H9)가 사람으로 감염되어 수십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고 대만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통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금류와 닭·오리 등에서 지속적인 저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발생되고 있어 차단방역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는 때이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때가 작년부터 먹여오던 사일리지 등이 떨어지면서 젖소에게 먹이는 사료들이 쉽게 변동되기 좋은 시기이다. 꾸준히 먹여오던 사료가 떨어져 급여하는 원료들을 갑작스럽게 변동시키면 소화불량, 1위 과산증 등 대사성질환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사료가 변동 없이 꾸준히 급여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모기로 인한 전염성전파를 막도록 하자. 아까바네바이러스는 유행열, 추진병, 아이노, 이바라끼와 같이 모기의 흡혈을 통해 전파되는 모기매개성질병이므로 6월중으로 아까바네과 유행열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또한 목장 주변에 모기가 서식 가능한 지역에 대해 깨끗한 청소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젖소의 발굽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과도한 단백질 섭취에 의한 영양불균형도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다. 발굽병 예방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영양균형이 되도록 사양관리를 해 주어야하며, 연 1~2회 정기적으로 발굽을 삭제해 주고 발굽병 예방을 위한 발굽소독을 실시한다. 발굽소독을 위한 소독조는 젖소 발굽이 완전히 침지될 수 있도록 충분한 깊이로 하고 주 2~3회 실시해준다.

젖소가 분만 후 24시간 내에 분비하는 우유를 초유라고 하며, 초유에는 비타민 A, D, E 및 단백질 등 영양물질이 일반 우유보다 훨씬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신생송아지 건강과 초유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출생 후 6시간 이내가 좋고 늦어도 출생 후 12시간 이내 포유시켜야 한다.

분만초기에는 송아지설사가 없다가 송아지 방에 몇 마리 거치면서 많은 설사가 일어난다. 이러한 설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 송아지 방은 깨끗이 청소한 후 소독액으로 소독 및 건조를 철저히 한 후 새로운 송아지를 입식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구제역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정기적인 축사소독과 모든 축사 축사 출입차량 및 사람에 대한 소독, 출입자 기록과 소독작업 기록 등 구제역방역의 최 일선 감시자로서 농장주 스스로가 솔선해야 할 것이다. ㉸